

2. 삼국시대의 회화-고구려 고분벽화

1.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시기 구분과 각 시기 벽화의 특징을 알아봅시다.
2. 고구려 고분벽화의 회화사적 의의를 알아봅시다.

- 고분벽화--장의예술(葬儀藝術)/ 죽은자의 생전의 삶과 사후의 삶이 주제.
- 계세사상(繼世思想)
- 통구(집안), 환인, 평양 지역에 약100기의 벽화무덤
- 봉토석실분(封土石室墳, 굴식돌방무덤)
- 요동, 화북지방의 한대, 위진시대 고분벽화에서 전래
- 4세기 중반부터 7세기 중반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 벽화로 장식한 무덤이 조성됨.
- 프레스코(Fresco) 기법, 세코(Secco) 기법.
- 계세적 내세관-불교적 내세관-선·불 혼합적 내세관
- 천정에는 일월성신(日月星辰), 신수(神獸), 서조(瑞鳥), 영초(靈草), 비운(飛雲), 연화(蓮花) 등 천상의 세계 · 내세의 세계, 벽면에는 주인공 관련된 현실세계 기록적 서사적 표현하여 하나의 소유주 같은 공간 형성
- 영혼의 승천으로 내세에서 영생을 구했던 지배층의 계세(繼世) 사상과 후장 풍습
- 고구려 특유의 강한 기상과 국제적 감각을 발휘해 힘차면서도 활달한 화풍

1. <초기> 4-5세기중반:

신선사상 죽어서 西王母가 사는 仙界로 승천하여 永生不死하기를 기원

묘주가 생전에 누렸던 부귀영화가 선계에서도 영원하기를 기원

*인악3호분: 永和13년(357, 고국원왕 27) 동수(冬壽) 69세로 세상을 떠나다

-永和는 東晉 穆帝의 연호

-동수는 중국 연(燕)나라에서 망명해온 장군인 동수에 해당(『자치통감』)

동수묘(冬壽墓)說, 미천왕(300-331)능설, 고국원왕(331-371)능설, 소수림왕(371-384)능설

연대가 확실한 가장 오랜 고구려 벽화고분, 고구려 벽화고분의 출발점과 같은 존재

*덕흥리무덤(408, 광개토왕 18) "영락18년(永樂18년:408년)에 죽은 유주자사(幽州刺史) '진(鎭)'의 묘 주공(周公)이 택지, 공자가 택일, 무왕(武王)이 택시했고 장송한 뒤에는 자손이 번창하고 관위는 나날이 승진해서 천후에 이르고 재화가 차고, 소·양이 매일 도살되고 곡식이 무진하고 후세까지 끊이지 말 것이며 찾아와서 기식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말 것이라"는 명문(銘文)

-영락은 광개토왕(r.391-413)의 연호

2. <중기> 5세기중반-6세기중반

불교적 내세관 연꽃을 통해서 서방극락에 태어나기를 희망

3. <후기>6세기중반-7세기중반

도교유행: 선계에 대한 믿음이 다시 확고해짐.

방위신인 사신도에 의해 주검 보호·영생 기원

*고구려에 도교 전래는 영유왕7년(624) 당 고조가 도사 보내 노자를 강했다

보장왕(643) 권신 연개소문이 불교 유교는 융성한데 도시는 쉽사리 볼 수 없다 당으로부터 도교를 적극 배울 것을 주장

- 불로불사 체득하여 하늘 날 수 있는 신선을 한없이 동경했던 듯
- 燧人氏: 불을 발명하고 火食하는 법 알게 했고 추위로부터 보호받게 했다
- 야철신: 문명 창시자
- 여와: 중국 전설 상의 제왕인 三皇의 하나. 천지창조 신화와 관련된 신
- 복희: 易의 八卦 만들고 망을 발명해 어렵 가르쳤다. 사냥 기술 창안

※고구려고분벽화의 영향은 백제, 신라, 가야, 일본에 미침

- 백제: 부여 능산리 고분
- 신라: 영주 순흥 읍내리 고분(기미년명)
- 가야: 고령 고이동 고분
- 일본: 나라(奈良) 아쓰카촌(明日香村) 다카마쯔쯔카(古松塚)

【참고 자료】

안휘준, '고구려 고분벽화의 흐름', 『강좌미술사』 10, 1998/ 『한국회화사연구』 시공사, 2000, pp.18-44.
_____, '한국고대회화의 특성과 의의(상/하)-삼국시대 인물화를 중심으로' 『미술자료』 41호·42호, 1988. 6,12;
삼국시대의 인물화, 『한국회화사연구』 시공사, 2000, pp.45-115.
전호태, 『고구려 고분벽화 연구』, 사계절, 2000